

발 닿는 곳곳 예술의 향연...광주 힐링 브랜드로

‘문화수도 광주’ 성공 프로젝트 <13>

(1부) 킬러 콘텐츠를 만들자

12 공동 예술의 거리



공동예술제의 빅 이벤트인 미디어 아트.



광주시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는 대인예술시장과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을 이어주는 가교이자 문화특화지구라는 점에서 특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난달 24일 공동예술제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열린 예술의 거리 야외경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역 예술가와 시민들이 어우러진 문화장터.



예술의 거리 공방에서 시민들이 다도체험을 하고 있다.

“자, 5만원 나왔습니다. 6만 원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없으면 이 산수화는 5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탁탁탁.”

지난달 24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 야외무대. 중앙초교 4거리에 꾸며진 이 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다. 이튿날 제14회 예술의 거리 야외경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한 공동예술제(11월22일~24일)의 하이라이트. 이날 야외경매는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50여 명의 미술애호가들이 몰려 큰 성황을 이뤘다. 소치(小癡) 허유(許維), 미산(米山) 허형(許瀾)을 이어 3대째 운림산방의 화맥을 잇고 있는 남봉 허건 화백의 족(竹, 시작가 35만원)이 메인 작품으로 출품됐다. 이외에도 박행보의 ‘매조도’, 옥산 김옥진의 ‘추경’, 버선장, 도자기, 사진, 조각 작품 등이 출품돼 눈길을 끌었다.

야외경매가 끝난 오후 5시 공동주차장 특별무대에서는 퓨전 국악밴드 ‘creative 나비’, 트럼펫 연주단 ‘폴하우스’, 핑거스타일 기타 연주 ‘스타카토리퍼블릭’, 싱어송라이터 ‘송지은’, 힙합크루 ‘소울트라이브’, 어쿠스틱 밴드 ‘맘대로 밴드’ 등 총 8팀의 난장콘서트가 진행됐다.

공동예술제는 광주대 산학협력단인 예술의 거리 아트스페이스(대표 이명규·이하 아트스페이스)가 기획한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문화와 예술, 공연이 흐르는 거리예술제를 모토로 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3일간 예술의 거리 일대와 공동주차장 특별 무대에서 열린 공동예술제는 예술의 거리의 장소성을 살리기 위해 예술의 거리 상가와 예술가들의 콜레보레이션(협업)을 이끌어 냈다. 상인들이 중심이 된 야외경매와 프로젝트 팀이 어우러진 공동문화장터가 대표적인 예다.

2012 공동예술제는 행사 첫째날인 22일 예술의 거리 상인들이 주축이 된 ‘감축’과 작가 전시프로그램 ‘아트 토크’(Art Talk)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감축’은 상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체험프로그램. 예술의 거리에 자리한 다실과 공방을 무대로 직접 다도를 배우고 공예작품들을 제작하는 뜻깊은 기회였다.

예술의 거리의 빈집(광주시 동구 공동 예술길 17-7번지)에서

거리예술 모토 ‘공동예술제’ 개최

거장의 작품 소유 기회 ‘아트 경매’

미디어 아트·난장 콘서트 등 성황

문화 특화지구 변신 가능성 확인

열린 ‘아트 토크’는 다원공간 스톤젠지작가들의 개와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재기발랄한 무대였다. ‘남쪽 이야기’라는 테마로 열린 이 전시는 폐허나 다름없는 공간이 독특한 아우라를 발산하는 갤러리로 변신하는 ‘기적’을 보여주었다. 특히 성백, 백상옥, 김정호, 문병고, 박상현, 유재명, 정종훈, 이성웅, 김광현 등 20~30대 젊은 작가들의 거침없는 표현력이 돋보였다.

여기에 예술의 거리 곳곳에서 진행되는 ‘버스커(거리의 악사)’ 형식의 다양한 공연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먹거리 장터 등은 예술제 기간 내내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어들였다.

뛰니뛰니해도 이번 공동예술제의 빅 이벤트는 미디어아트. 아트스페이스가 야심차게 기획한 미디어아트는 24일 오후 6시~9시까지 예술의 거리 곳곳에서 상영됐다. 다른 예술의 거리 이벤트와 달리 미디어 영상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볼거리다. 이 프로젝트는 영상, 설치, 회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과 조선탄, 광주대 디자인학부 3학년 학생들의 오브제 매핑(mapping) 작업으로 꾸며졌다. 오브제 매핑기법은 컴퓨터 애니메이션에서 모델을 사실적으로 보이기 위해 2차원의 이미지를 3차원의 굴곡이 있는 표면 위로 옮겨 표현하는 방식. 예술의 거리를 미디어 영상으로 화려하게 밝힌 미디어 아트는 예술가와 상인,

시민들을 하나로 묶는 소용돌이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와함께 이번 공동예술제에는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들이는 부대행사가 풍성하게 열렸다. 예술의 거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직접 인쇄해 엽서로 제작한 무료포토 인쇄만들기에서부터 예술의 거리의 방문객의 소원을 적어 특정 공간에 전시한 아트방명록, 무료로 전기자전거를 대여해주는 아트바이크 체험 프로그램, 힙합과 퍼포먼스 행사 등이 3일동안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번 아트스페이스의 공동예술제는 예술의 거리를 광주의 킬러콘텐츠로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만 하다. 사실 예술의 거리는 한동안 예향 광주의 예물단지나 다름없었다. ‘예향 1번지’임에도 전남도청 이전과 IMF 여파로 쇠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예술의 거리에 온기를 불어넣는 반짝 사업들이 임시방편으로 이어졌지만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끌어 모으는 데는 실패했다. 때문에 아트스페이스의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은 성공여부에 따라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시킬 수 있다. 사람과 사람, 문화와 사람이 만나는 서울 인사동의 찜지길 처럼 특화된 문화지구로 변신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명규 대표는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은 장소의 역사성과 예술의 정체성, 참여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예술의 거리에 특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선택과 집중, 시민참여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동 예술의 거리는 아시아문화 전당과 인접한, 예향 광주의 심장이다. 때문에 예술의 거리의 부활은 아시아 문화전당의 성패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3만원으로 떠나는 제주도여행

매일 광주에서 출발하는 서틀버스로 목포항까지 편안하게!
국내최대 씨스타크루즈호 타고 제주까지 안전하게~3만원으로 떠나세요.

광주↔목포 서틀버스 + 씨스타크루즈호

광주출발 06:40 광천터미널 맞은편
목포출발 21:30 여객터미널 주차장

*1인 편도요금이며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광주출도착
제주도 2박3일 139,000원

- 1일차 도두봉 트레킹, 용두암 용연, 노을언덕 무인카페
- 2일차 오설록, 생각하는 정원, 서커스월드, (현지직불) 서귀포유람선, 롯데호텔정원, 올레길
- 3일차 선녀와나무꾼, (현지직불) 몽골리안마상쇼 or 매직쇼,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허브동산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 서틀버스, 왕복선박료, TAX, 차량, 일반 호텔(다인실), 일정표내 입장료, 식사 <중식2회, 조식2회>
불포함사항: 가이드 팁, 개인비용, 현지직불관광, 자유석식

씨월드 고속훼리(주) 우수대리점. 제주배닷컴 www.jeube.com 1644-2261